

해수부, 중동전쟁 이후 우리선박의 원유 첫 국내수송 안전 지원

- 호르무즈 우회항로인 홍해를 통해 사우디 안부항에서 원유 첫 국내 수급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안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오늘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반군의 활동 거점 지역으로 선박 피격 등 위험성으로 해수부가 운항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23.10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선박피격 약 79건 발생

지난 4월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항로인 홍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그간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선박-선사와 실시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하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우리선박을 통한 원유 국내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김인수 (051-773-5850)
	해사안전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만 (051-773-5851)